

쿠파타이어, 금호타이어 지분 인수

보통주 11% 인수 합의 ... 금호타이어의 한국·런던 동시상장 일환

미국의 타이어 제조기업인 쿠파타이어 & 러버는 금호타이어의 지분(보통주) 11%를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1월11일 발표했다.

쿠파타이어는 금호타이어 지분 인수는 금호타이어가 1/4분기에 한국과 런던 증시에 동시 상장하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8위의 타이어기업인 쿠파타이어의 토머스 다틸로 최고경영자는 “세계 11위 타이어기업인 금호타이어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 것은 전략적 제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4년 12월3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금호타이어가 2005년 상반기에 한국과 함께 런던 증시에 동시 상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업공개(IPO) 규모는 15억달러 이상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금호타이어가 공모를 통해 전체 지분의 3분의 1 가량을 5억달러에 매각할 것을 고려중이며, 이를 위해 JP모건을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화학저널 2005/01/12>